

보도시점 2025. 5. 14.(수) 배포 시 배포 2025. 5. 14.(수) 16:00

## 오사카엑스포 '한국의 날', 현장에서 더욱 빛난 케이-푸드(K-Food)!

- 농식품부, 한식 시식 체험(5.13~16), 한·일 우호 만찬(5.13), 수출기업-바이어 수출상담회(5.14) 성황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 오사카 엑스포(이하 엑스포)'의 국가별 공식 기념행사(National Day)인 '한국의 날(5.13)'을 계기로 소비자 체험·홍보 행사, 한·일 우호 만찬, 수출기업-해외 바이어 간 1:1 수출상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케이-푸드(K-Food) 소비자 체험·홍보 행사

5월 13일(화), 오사카 엑스포 행사장(WASSE)에서는 우리나라 농식품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일본 소비자와 해외 관광객에게 알리기 위해 케이-푸드(K-Food) 소비자 체험·홍보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장에서는 파프리카와 같은 신선 농산물부터 일본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라면, 음료 등 가공식품까지 한데 모아 전시, 시음·시식 행사가 진행되었고, 김밥 만들기 체험, 삼계탕 요리 시연을 비롯한 다양한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관람객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다. 또한, 유명 요리 전문가를 초청하여 고추장, 파프리카 등 일본 수출 품목을 활용한 비빔밥을 선보였으며, 한국의 건강한 식문화를 주제로 한 토크쇼도 진행하여 케이-푸드(K-Food)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 오사카 엑스포 및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우호 만찬

5월 13일(화) 저녁에는 주오사카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오사카 엑스포 및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한·일 우호 만찬'을 개최하였다. 만찬에는 양국 정부, 국회의원, 경제계, 유관기관·단체 등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만찬장 입구에는 김치, 파프리카, 전통주, 신선 농산물 등 우수한 우리나라 농식품이 전시되었으며, 만찬 메뉴는 미술평가이드에 선정된 한·일 양국의 ‘온지음’과 ‘첸치’ 레스토랑 요리사가 공동 개발한 전채, 생선요리, 냉면, 비빔밥, 디저트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최근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과 농식품부 지정 유정임 명인의 김치가 제공되어 한층 의미를 더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일본의 음식 문화는 세계에 자랑할 소중한 자산”이며, “한·일 양국이 앞으로도 음식을 비롯한 일상의 교류를 통해 더 깊고 넓은 우정을 쌓아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수출기업 - 수입 바이어 1:1 수출상담회

5월 14일(수) 도쿄에서는 한국 수출기업 39개사(社), 일본 수입바이어 200여 개사(社)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가 개최되었다. 홍삼, 만두, 파전, 김치, 막걸리 등 다양한 케이-푸드(K-Food)가 소개되었고, 주요 대도시는 물론 교토, 히로시마 등 2선 지역의 바이어도 참가하였다. 아울러, 수입 바이어가 현지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유망제품을 전시하는 코너를 병행하여, 지역 기반 유통망 추가 확보와 소비자와의 점점 강화를 도모하였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수출상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과 수입 바이어를 격려하면서, “정부는 ‘2025 오사카 엑스포(4.13~10.13)’를 최근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대(對)일본 농식품 수출이 반등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며,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고품질(프리미엄) 농식품 생산, 글로벌 유통 및 마케팅 지원, 지속가능한 협력체계(파트너십)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 행사 사진

|       |          |     |     |     |                |
|-------|----------|-----|-----|-----|----------------|
| 담당 부서 | 식품산업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강효주 | (044-201-2171) |
|       | 농식품수출진흥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남주 | (044-201-2174) |

